

재외동포의

창

November 2017



겨우내 기본반찬으로 먹을 김치 만드는 민족의 고유 행사... '김장'

이웃과 나눔의 정 실천하고 공동체 결속 다지는 독특한 문화현상



지난해 11월 인천 사할린 동포 복지회관에서 열린 '김장축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다.

김장은 사회적 나눔, 구성원 간 협력 증진 등의 다양한 목적이 있고 특히 지역의 차이, 사회·경제적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포괄한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전역에서 행해지는 김장의 기원은 알 수 없으나, 문헌상으로는 고려 시대의 문인 이규보(1168~1241)가 쓴 시에 '무를 장에 담그거나, 소금에 절인다'는 내용으로 김장이 언급되었고, 지금과 같이 초겨울에

입동(11월 7일)도 지났다. 가을은 더욱 깊어가고 겨울은 코앞에 다가왔다. 11월의 대표적 연례행사는 '김장'이다. 겨우내 기본반찬으로 먹을 김치를 만드는 우리 민족의 고유 행사다. 김장은 전통적으로 입동을 전후해 했다. 물론 추운 북쪽 지방은 조금 이르고, 따뜻한 남쪽 지방은 좀 늦었다. 추운 지방은 양념 맛이 약하고, 따뜻한 지방은 그 맛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 또한 차이점이다. 김장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온 가족이 한데 모이거나 동네 이웃, 친인척이 손을 합쳐 담그기도 한다. 김장김치 담그기는 가족과 일가친척, 동네 공동체의 연례행사이자 정을 주고받는 작은 축제였다. 김장철이 되면 온 집안과 온 동네가 들뜬 분위기에 빠져드는 이유다.

김장한 기록은 19세기 문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 사람들은 주변의 자연환경에 가장 잘 맞는 김장 방식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왔으며 김장의 구체적인 방식과 재료는 여러 대에 걸쳐 전승되고,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뤄졌다.

'김장문화'는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며, 결속을 촉진하고 한국인들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준다는 점과 비슷한 천연재료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식습관을 가진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 간의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2013년 12월 5일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장\]](#)



CONTENTS

2017. 11



- 02 한국의 얼** 겨우내 기본반찬으로 먹을 김치 만드는 민족의 고유 행사... '김장' 이웃과 나눔의 정 실천하고 공동체 결속 다지는 독특한 문화현상
- 04 특집** '한민족 비즈니스 한마당'... 세계한상대회 창원서 개최 50개국 한상과 국내 중소기업인 모여 '동반성장' 모색
- 08 화제** 한·미,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합의... 트럼프 "북핵 문제 '코리아 패싱' 없다" 서울 정상회담서 합의... 첨단 軍자산 도입 협의 개시
- 10 초대석** 한우성 신임 동포재단 이사장 "소의 동포 끌어안겠다" "동포사회, 모국과 동반 성장하도록 윈-윈 체제 구축"
- 12 기획** 건국 150주년 맞은 캐나다... 한인사회, 1.5세대 활약 부각 한-캐나다 양국 문화 이해하는 세대 간 교량 역할 기대
- 14 글로벌 코리아** '샐러리맨 신화' 재외동포 금중국 한미은행장 한인 차세대 위해 모국 소개 책 펴낸 재외동포 최완 이사장 도미니카·아이티서 전력회사 운영하는 한인 1.5세 최상민 사장
- 16 동포소식** 재외동포 178개국에 743만 명 거주... 2년 전보다 3.42% 늘어 외
- 19 동포 캘린더** 'D-100' 美 LA에 울려 퍼진 '평창의 꿈' 외
- 20 유공동포** 61년간 장학사업 펼쳐온 일본 사립대 첫 외국인 교수 서용달 지금까지 1천200여 명의 장학생 배출... 재일동포 참정권 획득운동에도 앞장서
- 21 주목! 차세대** 내년 美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장 낸 대니얼 아릭 고 고경주 전 차관보 아들... "공격받는 '아메리칸 드림' 회복하겠다"
- 22 지구촌 통신문** 6·25 호주 전쟁영웅 부인 생일 꼬박꼬박 챙기는 한인들 울린 그린 여사 생일 13년째 축하... 이사 계획에 마지막일 수도
- 23 한민족 공감** 美 대도시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북판에 위안부 기림비 우뚝 북가주 한인들 정성으로 모금운동 한 달여 만에 목표액 달성
- 24 고향의 맛·멋** 임금님도 부럽지 않은 산해진미 '강진한정식' 수라간 공녀가 비법 전한 궁중음식에서 유래... 간장계장과 보리굴비로 식사 마무리
- 26 OKF 뉴스** 유공 고려인 동포 50명 초청, "모국과 뿌리 연결" 외



표지 이야기

전 세계 50개국에서 모국을 찾은 1천여 명의 한상과 3천500여 명의 국내 기업인들이 참가한 '제16차 세계한상대회'. '더 나은 한상,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25~27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렸다.



발행인 : 한우성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oc@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민족 비즈니스 한마당’ ... 세계한상대회 창원서 개최

50개국 한상과 국내 중소기업인 모여 ‘동반성장’ 모색

국내 기업과 한상(韓商) 간 비즈니스 창출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한 ‘제16차 세계한상대회’가 10월 25~27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렸다.

전 세계 50개국에서 모국을 찾은 1천여 명의 한상과 3천 500여 명의 국내 기업인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더 나은 한상,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교류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상은 한반도 경제지도를 넓힌 애국자”

25일 열린 개회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동포 경제인들은 모국이 어려울 때 누구보다 먼저 발 벗고 나섰고, 척박한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어렵게 축적한 노하우와 지식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나눠줬다”며 “한상 여러분은 한반도 경제지도를 전 세계로 넓혀나가고 있는 진정한 애국자”라고 격려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축사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는 ‘당당하고 책임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 청년들이 차세대 한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줘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세계한상대회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뿐만 아니라 청년 해외 취업 등 ‘인재수출’의 큰 장터이면서 상생의 협력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한민족이라는 동질감 아래 한자리에 모인 기업인들은 대회를 통해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최를 선언했다.

임도재 대회장은 대회사에서 “대회를 통해 다져진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식은 김병윤 카이스트 창업원장의 ‘카이스트와 기술창업 생태계’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 안상수 창원시장 주최 환영 만찬 등으로 이어졌다. 앞서 오전에는 제31차 한상대회 운영위원회,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제32차 리딩CEO포럼, 기업전시회 오프닝 등이 열렸고, 하루 전에는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의 교류의 밤 행사도 열렸다.

올해 처음 마련된 ‘한상포럼’은 한상과 국내 경제인 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리딩CEO포럼에서는 일본 파친코 업계 1위인 마루한의 한창우 회장과 강호갑 중견기업인연합회 회장이 각각 ‘한상이 말하는 글로벌시장-기업인의 도덕과 윤리’, ‘중견기업이 바라보는 글로벌 시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1



2



3



4

1.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상대회운영위원회'에 참가한 동포 경제단체장들이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 이번 대회에서는 일대일비즈니스미팅을 포함해 1만513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돼 1억8천80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3. 10월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는 '한상리더십콘퍼런스'가 열렸다. 연사로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사진 왼쪽)과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나섰다.
4. '제16차 세계한상대회'에는 국내외 동포 경제인 4천500여 명이 참가해 10월 25~27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렸다.
5. 이번 대회는 해외 진출 정보 제공과 상담을 위한 '해외진출정보센터'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센터를 방문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왼쪽)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5

특화된 비즈니스 네트워킹 프로그램 활발

26일에는 글로벌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활발히 진행됐다.

오전에 열린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조성진 LG전자 부회장과 임지훈 카카오 대표이사가 연사로 나서 한상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펼치고 성공 신화를 일궈낸 글로벌 경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조 부회장은 '도전과 열정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LG전자에 재직하며 40년간 쌓은 경험으로부터 체득한 경영 철학과 성공 방식을 주요 시기별 스토리를 통해 솔직하게 공유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이미 기업·업종 간 경쟁과 협력의 경계는 사라졌기에 LG전자가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삶을 더 편리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회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임지훈 대표는 "카카오가 지금까지 이뤄낸 변화와 성장은 'Connect Everything'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주위를 관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과 연결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오후부터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가 4차 산업, 금융, 학술, 특별세션으로 나눠 진행돼 맞춤형 정보 공유와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올해 처음 진행된 '금융세션'에서는 고석화뱅크오브호프 명예회장의 '미국 내 한인은행의 현주소와 성공을 위한 조건' 사례발표를 비롯해 화상(華商), 유대인, 재일동포 금융 커뮤니티 사례를 통해 세계 금융의 현황과 발전상을 공유하고, 한인 금융시장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한상 네트워크 활용 방안과 전



1



2



3

1. 비즈니스네트워킹 세미나 '금융세션'에서 고석화 미국 뱅크오브호프 명예회장이 사례를 발표했다.
2. 한상들은 10월 27일 국내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기 위해 '한상&청년, Go Together!'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3. 이번 한상대회 기업전시회에는 350개 부스가 마련돼 사흘간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다.

문적인 투자 전략을 모색했다.

학술세션에서 한상기업 연구발표로 소개된 라오스의 코라오 그룹은 많은 자산이나 특별한 기술력 없이 라오스 최대 민간기업으로 성장한 대표 사례로서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역·국가별 밍글링' 프로그램에서는 '러시아·CIS,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북미, 중국', '아시아, 대양주, 유럽' 등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세계 각지에서 온 한상들이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폭넓은 교류를 이어가며 한상 네트워크 고도화를 이끌어냈다.

올해는 기업전시회 참가업체 중 9개사를 선정해 그룹을 돌며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우리상품자랑전' 코너를 새롭게 선보였으며, 지역별 연합회 대표 소개 및 청중 개별 홍보 시간을 확대해 참가자들 간 거리를 좁혔다.

한상 기업들 청년인턴 100명 채용... 내년 대회는 인천서

동포기업인들은 이날 국내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기 위해 '한상&청년, Go Together!'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70개 기업 대표들은 현장 면접을 통해 100명의 인턴 채용을 결정했다. 이 밖에 개그우먼 박지선이 사회를 본 토크 콘서트, 오세영 코라오그룹 회장과 조병태 소네트그룹 회장의 성공 사례 특강, 이슬지 코라오그룹 사원의 인턴 도전 사례 발표 등을 통해 대회장을 찾은 청년들에게 용기와 도전정신을 북돋워 주었다.

올해는 청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상&청년, Be Partner!' 를 신설해 해외 진출 지원 범위를 취업에서 창업까지 확대했다.

임도재 대회장은 "이번 대회를 포함해 올해 200명이 넘는 인원이 한상 기업을 통해 해외 취업의 문을 열었다"며 "견고해진 한상 네트워크가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넘어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일조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대회 기간 대양주, 동남아,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유럽, 중남미 등 대륙별 해외 취업 정보 부스가 설치돼 정보 제공과 상담을 진행했다.

창원 세계한상대회에 마련된 기업전시회에는 350개 기업이 부스를 설치해 3일간 현장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350개 부스가 마련된 기업전시회, 특화된 비즈니스 프로그램 도입,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한상과 국내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에도 성과를 냈다.

대회 기간 1만513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돼 1억8천80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국내 주류 생산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시음하고 구매 및 수출 상담도 진행한 '우리 술 미니 바잉쇼'도 열렸다.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KAGRO), 주류회사 무학, 창원시 3자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비롯해 일본 도쿄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와 중국 상하이상인회 등 한상 단체와 국내 기업·단체 간 또는 한상단체 간 7건의 MOU가 진행돼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한상 리더들이 장학사업을 펼치기 위해 만든 사회공헌 재단 '글로벌한상드림'은 대회 기간 성금을 모아 창원 지역 내 탈북자·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의 자녀 3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글로벌 시대와 한상 대회’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폐회식에서는 차기 개최지인 인천광역시로 한상대회를 전달하는 순서가 마련됐고, 인기가수 인순이와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피날레 공연에 이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치 환송 만찬을 끝으로 모든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상들은 장 기화한 국내 경기 침체와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 보탬을 주고자 세계 각국에서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달려와 주었다”며 “한상네트워크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는 신념 아래 대회 기간 구축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큰 비즈니스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

INTERVIEW

청년인턴 뽑은 한상 이광복 · 김창현 · 양민영 “창업 노려라, 주인의식 · 도전정신 있어야 성공”

창원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 이광복(49) 조지아 개런티메탈 대표, 김창현(45) 인도 AA스튜디오 컨설팅 대표, 양민영(41) 대만 해피톡 대표는 재외동포재단이 마련한 한상기업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15명을 인턴으로 뽑았다.

이들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들에게 “스펙 쌓기나 관광을 위해 인턴십에 참가하면 허송세월만 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상들은 국내 청년을 뽑을 때 학력 · 자격증 · 나이 · 성별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연 · 지연 · 혈연이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턴에 그치지 않고 취업 · 창업까지 생각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집입니다.”

무역 · 유통 사업을 펼치는 이광복 대표는 올해 3명의 인턴을 채용했다. 그는 인턴에게 조지아 전통식품을 상품화해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백오디와 전통 꿀 등 4가지 제품을 전주국제발효식품박람회내 내놓아 식품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는 “단순히 업무 보조만 해서는 인턴 기간에 배울 것이 많지 않아 성취감을 맛보게 하려고 도전 과제를 부여했는데 상품화까지 이뤄내 대견하다”고 평가했다.

건축 · 인테리어 · 디자인 전문회사를 이끄는 김창현 대표는 지난해부터 4명의 인턴을 받아들여 이 가운데 2명을 정식 채용했다.

“해외에서 기반을 닦은 한상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도전과 실패를 밥 먹듯이 해왔습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고 쉽고 편한 일만 찾아서는 성공의 열매를 맛볼 수 없죠. 적



김창현 인도 AA스튜디오 컨설팅 대표, 이광복 조지아 개런티메탈 대표, 양민영 대만 해피톡 대표(왼쪽부터).

극적인 인턴은 일부러 더 호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고 따라오는 사람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업체를 운영하는 양민영 대표는 올해 8명의 인턴을 선발했다.

그는 “비즈니스에 연습은 없기에 인턴이라도 책임감을 강조한다”며 “대신 업무 시간에는 일에 집중하되 쉴 때는 친구도 사귀고 현지 문화도 적극적으로 체험해보라고 권장한다”고 소개했다.

한상들은 인턴 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기간 연장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인턴들은 재단에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불하고 기업은 인턴 기간 숙소 또는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한다.

회식자리 등을 만들어 수시로 인턴을 격려하고 자신의 경험을 전한다는 이들은 “낮설고 물신 곳이라고 해외 생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가진 것 없이 열정만으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서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곳”이라고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문했다. **[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7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미,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합의... 트럼프 “북핵 문제 ‘코리아 패싱’ 없다”

서울 정상회담서 합의... 첨단 軍자산 도입 협의 개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전격적으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합의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미사일 체계의 더욱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는 북한의 도발 억제는 물론 북한 위협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아울러 첨단 정찰자산과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즉시 시작할 것을 양국 당국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확인했고 우리는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 배치를 확대·강화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 정찰자산 획득·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韓, 수십억 불 무기 주문할 것” 한미 FTA 관련 협의 촉진 합의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자산이 우리에게 있다.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말했다”며 “한국이 주문할 것이고, 이미 승인 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



11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군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8일 오전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에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대 고위 관계자는 “이전 정부가 협의·합의한 무기구매 부분은 지속하며, 최첨단 전략자산 부분은 별도로 미국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구매 또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 기술적 측면부터 검토·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국 간 안보협력은 그간 지속해왔고 필요하다면 특히 북핵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훈련도 해왔다는 점에서 안보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중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가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 관계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중 균형 외교를 언급한 것과 관련, “균형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과 중국은 각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 논의 과정에서의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양국 간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을 더욱 증진하고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이날 낮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함께 방문해 한미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등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트럼프, 北에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 과거 행정부와 달라”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방문 이틀째인 11월 8일 국회연설에서 “우리를 과소평가하지도 시험하지도 말라”며 최악의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 직접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체제는 미국의 과거를 유약함으로 해석했지만, 이는 치명적 오산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 행정부와 다른 행정부다. 오늘 나는 한미 양국뿐 아니라 모든 문명국을 대신해 북한에 말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장**

한우성 신임 동포재단 이사장 “소외 동포 끌어안겠다”

“동포사회, 모국과 동반 성장하도록 윈-윈 체제 구축”



한우성(61) 신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동포사회의 역량은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며 “동포사회가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모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동포재단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외동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단의 수장이 된 그는 “한 반도를 둘러싼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동포사회도 힘을 보탬 수 있도록 바람직한 동포의 역할을 정립할 것이며, 아울러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됐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다음은 한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Q 재외동포 출신 첫 이사장이어서 동포사회의 기대가 크다.

A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 재외동포인 나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동포사회를 더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정책을 펼쳐나가라는 주문이라 생각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동포 입장에서 바라본 모국 또는 동포재단과 실제로 그 기관의 책임자로서 업무를 보는 것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조율해서 재외동포에 대한 서비스가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

Q 재단 운영 계획이나 방침이 있다면.

A 기본 사업 방침은 한인 차세대의 정체성 강화,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 지위향상,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겠다. 재단 정책에서 소외되는 동포가 없도록 신경 쓰겠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듯이 재외동포를 위해 존재하는 재단이라는 원칙에 충실하겠다. 재외동포의 활용을 논하기에 앞서 이들을 위한 사업을 우선 펼쳐 모국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

동포사회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수시로 파악해 재단 사업에 반영하겠다.

Q 재단의 제주도 이전으로, 동포사회에서는 소통 부재를 이야기한다.

A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법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라 이전하지만, 동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금 입주해있는 외교센터에 서울사무소를 남겨둬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 놓았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의 정체성 교육과 동포단체들의 국내

거점의 기능을 수행할 '재외동포 센터'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 건립은 2000년부터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 온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우선 내년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예산 확보에 힘을 쏟겠다. 동포사회에서도 센터 건립에 힘을 보태려고 5천500만 원의 기금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Q 소외됐던 재외동포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A 해방 후 일본 정부가 행정 편의상 분류했던 '조선적'(朝鮮籍)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3만여 명의 재일동포, 20만 명에 이르는 해외 한인 입양인과 가족, 해외에서 국제결혼 한 다문화 가정, 국내체류 조선족과 고려인 등은 동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동포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최근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베트남 등 아시아 등에서 온 부인이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출신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녀의 경우 국적이 한국이다 보니 거주국에서 복지의 대상이 안 돼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 혈통상 분명히 재외동포이므로 이들이 올바르게 이중 정체성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도록 신경을 쓰는 것도 재단의 역할이라고 본다.

우선 소외된 재외동포의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

Q 740만 재외동포를 관장하는 재단은 외교부 3개 기관 가운데 예산도 조직도 가장 작다.

A 재단이 차세대의 정체성 육성을 위해 해마다 시행하는 '차세대 모국연수' 사업으로 연간 1천여 명을 초청한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행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국 초청연수'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매년 해외의 유대인 차세대를 5만 명 초청한다. 재단도 향후 5년간 점차 늘려서 1만여 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앞에서 말한 재외동포센터 건립, 소외 동포 지원, 차세대 육성 확대 등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 이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연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일이다. 미를 이유가 없다고 본다.

Q 복수국적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A 복수국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 정부는 현재 65세까지 부여하고 있다. 병역의무 등과 상관없는 연령이므로 55세까지 낮추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상 확대는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된다. 외국에 장기간 살아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거주국과 모국에서 당당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병역이나 조세문제 등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대비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Q '전쟁영웅 김영옥 대령'을 발굴한 주역이다. 다른 유공동포에 대한 관심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A 재외동포를 잘 알리기 위해서는 거주국과 모국에 공헌해 온 유공동포의 이야기를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 동포재단이 기존에 해왔던 일로 더 확대하겠다. 한민족 차세대에도 긍지를 심어주는 일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인물을 더 많이 소개하겠다. **[장]**

한 이사장 약력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1987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했다. 1988년 미주한국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미국 소수계 언론 연합인 뉴아메리카미디어 부장 등을 지냈다.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문제를 다룬 30여 회의 시리즈를 미주 한국일보에 게재해, 2001년 한국기자상 특별상을 비롯해 AP통신 기자상, 미국 내 비영언권미디어 최초 소수계 기자상을 받았고 풀리처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변호인단을 조직해 일본 정부와 일본회사를 상대로 1999~2006년 대일소송을 이끌기도 했다.

특히 미주 한인 2세로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의 영웅이자 인도주의자로 이름을 떨친 고 김영옥 대령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9년 LA 공립학교의 '김영옥중학교' 명명을 주도했고, UC리버사이드대 부설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와 국내 김영옥평화센터 설립에 앞장섰다. 김영옥의 전기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과 '1920, 대한민국 하늘을 열다' 등의 저서가 있다.

건국 150주년 맞은 캐나다... 한인사회, 1.5세대 활약 부각

한-캐나다 양국 문화 이해하는 세대 간 교량 역할 기대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맞아 7월 1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야구경기에 앞서 군인들이 대형 국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인구 280만 명의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 전경.



캐나다가 올해 건국 150주년을 맞았다. 인구는 한국의 약 70%밖에 안 되지만 국토 면적은 100배나 큰 나라인 캐나다는 면적보다 인구수가 적은 관계로 오래전부터 이민 문화를 개방해왔다. 쥘스탱 트뤼도 현 캐나다 총리의 부친으로 총리직을 연임한 피에르 트뤼도는 1971년 캐나다는 '다문화주의 나라'라고 공식 선언해 이민의 문호를 활짝 열어놓았다. 캐나다의 이민자 인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21.9%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G7(주요 7개국)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2036년까지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30%에 이를 것으로 캐나다 통계청은 예측한다. 가히 '이민자의 나라'라 할 만하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이민 정책을 적극 확대, 향후 3년간 이민자를 100만 명 가까이 수용할 계획이다.

건국 150주년을 맞아 올해 캐나다 한인사회가 느끼는 감정도 남다르다. 구한말 캐나다 선교사들은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편으로는 조선인을 목회자로 양성하기 위해

유망한 젊은이들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 캐나다에 한인이 정착하게 된 출발점이 됐다. 양국관계에서 캐나다의 한국전쟁 파병을 빼놓을 수 없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2만7천여 명의 군인이 참전해 516명이 희생됐다.

캐나다에 이민 온 한인들은 대부분 온타리오 지역, 특히 토론토에 정착했다. 온타리오 주가 이민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에는 약 24만 명의 한인이 있고 그 중 토론토에 약 12만 명이 살고 있다. 토론토 중심가에 오래된 코리아타운이 있으나 지금은 새로운 코리아타운으로 부상한 노스요크 지역에 1만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토론토 거주 한인의 종사업종은 편의점, 세탁업, 식당업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금융, 의료, 사회복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캐나다 한인사회는 이민역사가 오래되면서 1세대에서 3세대까지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세대가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이민 온 이른바 '1.5세대'이다. 1.5세대는 한

CANADA



1



2



3



4

1. 토론토 한인회관.
2. 한인회관 노인교실.
3. 2012년 서울에 왔을 당시의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의회 상원의원인 그는 7살 때 부모와 함께 캐나다에 이민 간 1.5세대이다.
4.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열린 제13회 토론토 평화마라톤 행사.

명배우 산드라 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무대에서 활약한 짐 팩(한국명 백지선) 한국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감독, 사상 첫 한국계 캐나다인 여성 정치인 샌디 리 등이 꼽힌다. 이 밖에도 1991년 토론토 시의원에 당선한 이래 8선을 기록한 조성준(레이먼드 조·81) 온타리오 주 의원을 비롯해 캐나다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한인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캐나다 한인 사회 위상을 높인 인물에 수여하는 '캐나다 한인상'은 올해로 35회째 이어질 정도로 권위와 전통을 자랑한다. 캐나다 전역에 한인회가 28개 있고 한인총연합회는 앨버타 주 에드먼턴에 있다.

토론토 한인회 활동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평화마라톤' 행사이다. 한인회 중심으로 캐나다인들에게도 남북 분단 현실을 알리는 측면에서 시작됐으며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요즘 토론토 한인사회의 핫이슈는 모금운동을 통해 한인 전용 요양원을 되살리는 것이다. 한인 전용 요양원으로는 토론토에서 유일한 이 요양원은 12년간 운영해 온 기업이 파산하면서 매각될 상황에 놓였다. 토론토 한인사회는 모금에 나서 목표 300만 달러 가운데 245만 달러를 모았다. 요양원의 가치는 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사회의 회생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캐나다인들은 동계스포츠 가운데서도 유난히 아이스하키 경기를 좋아한다. 자국팀이 나와 경기하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TV에 열중한다. 한국대표팀 짐 팩 감독은 캐나다 출신인 관계로 한국대표팀이 출전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캐나다인들의 관심이 많다고 한다. 캐나다 경제에 대해 이기석 한인회장은 "현지에서 느끼는 경기는 은근히 좋다"면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고 외국 기업의 캐나다 진출과 투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은 지난해까지 5년간 필리핀 인도, 중국, 이란이 이민자 인구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정체 상태를 보이니 캐나다 정부의 야심적 이민수용 확대 정책을 제시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변화의 여지가 주목된다. 이기석 회장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캐나다에 오면 기회가 많다"며 유망 분야로 원유생산, IT(정보기술), 광산(금광), 주식, 부동산 분야를 꼽았다. **▶**

국과 캐나다 양국 문화를 같이 알고 느낄 수 있어 교량(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 1.5세대는 한인사회의 토대를 닦은 부모세대(1세대)의 땀과 피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2세대와 다르다. 토론토 한인회를 이끄는 이기석(50) 회장, 캐나다 정계와 한인사회의 유명 인사 연아 마틴(53, 한국명 김연아) 캐나다 연방정부 상원의원은 모두 1.5세대이다. 이 회장은 1976년 부모를 따라 아르헨티나에 이민한 후 초등학교 2년 때 캐나다로 왔으며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3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연아 마틴 의원도 서울에서 태어나 7세 때 캐나다 밴쿠버에 이민 간 1.5세대이다.

한인회 이 회장에 따르면 토론토 거주 한인 가운데 1세대와 1.5세대, 2세대의 숫자가 비슷하고 3세대는 6살 이하로 숫자도 아직 5천여 명 수준이다. 캐나다에서 성공한 한인들은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캐나다연합교회 의장을 지내고 토론토대학교 빅토리아칼리지 학장을 역임한 고(故) 이상철 목사, 유전학과 생물공학 분야에서 국제적 인정을 받은 정영섭 박사, 유

41년 금융맨... “유리 천장 뚫으려면 차별화가 중요”

‘샐러리맨 신화’ 재미동포 **금종국** 한미은행장



“재미동포 차세대들이 유리 천장을 뚫고 우뚝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1세대인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한국계 은행인 한미은행 금종국(63) 행장은 은행원으로 출발해 행장까지 오른 ‘샐러리맨 신화’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10월 2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6차 세계한상대회에 참석한 금 행장은 “1세대와는 달리 현지화한 한인 차세대는 언어와 학력 등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소수계라는 차별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더 많은 한인 차세대가 미국 주류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가 이처럼 ‘멘토’를 자칭하는 이유는 이끌어줄 선배가 없었기에 자력으로 은행장에 오르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금 행장은 1963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했다. UC버클리를 졸업하고, 1977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뱅크오브캘리포니아’에 입사하면서 은행과 인연을 맺었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그는 1999년 캘리포니아 주 벤투라 카운티에 있는 미국 주류은행인 ‘퍼스트캘리포니아’ 은행장에 당당히 취임했다. 그는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해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생소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도전해야 독자적인 영역도 생기고 차별화된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성공 비결을 알려주기도 했다. 당시 자산규모 1억 달러의 은행을 11년 만에 14배 성장시켰고, 2012년 11월 펍 웨스트뱅크에 은행을 매각했다.

그러자 한미은행 이사회가 그에게 은행장으로 와달라고 제안을 했다. ‘이제는 동포사회를 위해 일할 때가 됐다’는 판단을 그는 스카우트 제의를 수락했다.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그는 2013년부터 한미은행을 맡아 운영하며 자산규모를 70%나 늘리는 실적을 올렸다. 현재 그는 한국계 금융이라는 한계를 넘어 타인종과 미국 주류사회가 인정하는 은행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공을 기울이고 있다.

“1세대가 들려주고 싶은 모국 얘기 담았죠...”

한국계 의식 희박한 차세대 위해 한국 소개 책 펴낸 재독동포 **최완** 이사장

“파독 광부·간호사 등 재독한인 1세대는 자식들이 독일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게 하려고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덕분에 2세대들은 대부분 주류사회에서 활약하는 인재가 됐지만,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서 늘 안타까웠죠. 차세대에 모국의 역사·문화·현재를 제대로 알려려고 가이드북을 펴내게 됐습니다.”

파독 광부 출신으로 ‘한국, 한국인을 이야기하다’(예원미

디어)를 펴낸 최완(76) 사단법인 21세기한민족문화포럼 이사장은 10월 18일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모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과 1세대들이 전하고 싶은 것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고 소개했다. 책은 국호와 국가 상징, 한글, 한국문학, 한강의 기적, 헌법과 정부, 한국의 근대화와 공동체 운동, 전통사상과 종교, 김장 문화·비빔밥·한옥, 스포츠, 기억할 만한 인물 등 13단락으로 꾸며져 있다. 영화 ‘택시운전사’로 유명

해진 독일인 기자 워르겐 힌츠페터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

1970년 광부로 독일에 파견돼 3년간 보훈의 광산에서 근무한 그는 이후 비스바덴에 정착해 여행사를 운영했다. 비스바덴 한인회장을 맡아 한글학교 설립을 주도했고 교장으로도 봉사했다. 재독한인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그는 남은 인생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차세대와 모국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결심해 2013년에 포럼을 설립했다.

그는 “차세대 중에는 의사,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전문직 종사자가 놀랄 만큼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편이지만 한국계라는 의식이 희박하다”며 “독일에서 나고 자랐어도 동양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모국을 아는 이중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강연회와 문화 행사 등을 꾸준히 열어 왔다”고 밝혔다.

한국어로 발간한 이 책은 우선 한국어과가 개설된 독일

대학과 한·독 가정에 공급할 예정이다. 연내에 독일어판도 발행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차세대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궁금해하는 독일인들에게도 소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영어판 발행도 추진한다.



도미니카공화국에 초등학교, 유치원 건립해 12년째 운영 지원 도미니카·아이티서 전력회사 운영하는 한인 1.5세 최상민 사장

고등학교 때 가족과 함께 도미니카공화국에 이민한 최상민(41) 사장은 도미니카와 아이티에 발전·전력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한인 1.5세이다. 최 사장이 설립한 회사 ESD(Enterprise Specialized in Development)는 직원 280명을 두고 연간 3천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올해는 4천만 달러를 예상한다. 올해 세계한상대회 참가차 조국을 방문한 그는 10월 25일 “은퇴 전에 도미니카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회사를 키울 것”이라며 “매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후진국일수록 전기 공급량이 부족해 발전 사업이 전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그는 2005년 ESD를 세웠다. 2009년부터는 이웃 나라인 아이티에도 진출했다. 2010년 아이티 지진 당시 재건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전력 복구에 앞장서자 현지 정부는 그를 신뢰했다. 현재 아이티 내 10개 발전소 가운데 1개를 소유하고 5개의 운영권을 가질 정도로 회사를 키웠다.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중시한 최 사장은 사업 초기인 2005년에 도미니카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

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건립해 지금까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아이티에 직업학교도 세웠고 운영비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아이티 정부관계자들은 현지인보다 더 교육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이라며 신뢰를 보낸다. 본사 건물의 한 개 층은 한인교회에 무료로 임대하는 등 한인사회와 선교를 돕는데도 적극적이다. 그는 최근 도미니카에 태권도 도장도 세웠다. 이 도장은 50명의 단원을 두고 별도로 선수도 육성할 계획이다. 목표는 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는 것. 이를 위해 한국에서 사범도 초청했다. 최 사장의 ESD는 최근 한국전력과 함께 도미니카의 국토 배전망 개선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SK와 협력해 도미니카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고 있고, 전기자동차를 위한 충전소 등 전기 플랫폼 사업도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정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창**



재외동포 178개국에 743만 명 거주... 2년 전보다 3.42% 늘어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숫자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43만 66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2017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이 수치는 2년 전보다 24만5천 792명(3.42%) 늘어난 것이며, 증가율도 2015년의 2.45%보다 0.97% 포인트 높아졌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보고를 취합해 2년마다 재외동포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재외동포 숫자는 1972년 집계 이래 2009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동포는 조사 대상 194개국 가운데 16개국을 제외한 178개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동북아시아가 336만6천65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북미 273만3천194명, 유럽 63만730명, 남아시아태평양 55만7천 739명, 중남미 10만6천784명, 중동 2만4천707명, 아프리카 1만854명 등의 순이었다. 동북아시아는 2.18% 감소세를 기록했고 아프리카와 중동도 각각 6.33%와 3.35% 줄어든 반면 북미(10.97%)와 남아시아태평양(9.23%)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중남미와 유럽은 각각 1.46%와 0.5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국 255만, 미국 249만, 일본 82만 순... 외국국적자 64%

나라별로는 중국(254만8천30명), 미국(249만2천252명), 일본(81만8천626명), 캐나다(24만942명), 우즈베키스탄(18만1천 77명), 호주(18만44명), 러시아(16만9천680명), 베트남(12만4천458명), 카자흐스탄(10만9천132명), 필리핀(9만3천93명), 브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서 전 세계에서 참석한 한인회장 등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라질(5만1천534명), 독일(4만170명), 영국(3만9천934명), 뉴질랜드(3만3천403명), 인도네시아(3만1천91명), 아르헨티나(2만 3천194명), 태국(2만500명), 싱가포르(2만346명), 키르기스스탄(1만9천35명), 프랑스(1만6천251명)의 차례였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내전 중인 시리아와 소말리아를 비롯해 가이아나, 나우루,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바하마, 사모아, 소말리아, 쿡제도, 투발루 등에는 재외동포가 한 명도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산마리노에는 1명, 바베이도스·안도라에 2명, 세인트루시아·예멘·지부티·코모로·콩고공화국 4명, 몬테네그로·카보베르데 6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

재외동포를 거주 자격별로 보면 475만8천528명(64.0%)이 외국국적자(시민권자)이고 나머지는 영주권자 104만9천210명(14.1%), 일반체류자 135만4천220명(18.2%), 유학생 26만284명(3.5%) 등 재외국민이었다.

홍콩총영사관, 한인 유학생 대상 금융기관 취업설명회 개최

주홍콩총영사관은 9월 22일 총영사관 강당에서 홍콩대 취업 매니저와 글로벌 금융기관 직원들을 초청해 80여 명의 홍콩 한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글로벌 금융기관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와 HSBC, 세계적 사모펀드 블랙스톤 그리고 재보험회사 제네랄리 직원들이 홍콩 취업시장 동향과 각 업종의 취업 프로세스, 업무, 근무여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복근 총영사 대리는 "국제화한 우리 청년들은 이제 눈을 세계로 돌려 전 세계 젊은이들과 경쟁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홍콩 글로벌 금융기관은 좋은 취업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은 런던, 뉴욕과 더불어



9월 22일 홍콩총영사관 강당에서 한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제1회 글로벌 금융기관 취업설명회.

어 세계 3대 금융도시로, 세계 100대 은행 중 77곳이 진출해 있다. 홍콩의 금융업 종사자는 22만 명에 이르며, 총고용의 7.9%(한국 3.0%)를 금융이 담당하고 있다.

홍콩총영사관은 우리 청년의 글로벌 금융기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설명회를 지속해서 개최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 가이드북을 제작해 취업준비생들에 배포할 계획이다. 홍콩대 경영대학원 서은진 취업 매니저는 "뚜렷한 취업 목표를 세운 후 자격증 취득과 관련 수업 수강, 인적 네트워크 확대, 인턴십 이수 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펼친다면 글로벌 금융기관 취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K-팝 열풍 중심' 美 델러스서 대규모 한인축제... 8만 명 열기

'K-팝 열풍의 중심' 미국 텍사스 주 델러스에서 대규모 한인축제가 열렸다. 이번 페스티벌에선 내년 2월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 올림픽 홍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추 트레인' 추신수도 올림픽 홍보에 힘을 보탰다.

주 휴스턴 총영사관 델러스출장소(소장 이상수)와 델러스한인회(회장 유석찬)가 공동 주최한 2017 코리안 페스티벌이 10월 28일(현지시간) 델러스 캐롤튼 아시안 타운센터에서 8만 명의 인파 속에 열렸다. 올해 4회째로 처음 야외행사로 열린 작년 6만 명에 이어 올해 최대인 8만 명이 몰려 한인 커뮤니티 대표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참가자들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열을



2017년 코리안 페스티벌이 10월 28일 미국 델러스 캐롤튼 아시안 플라자에서 열린 가운데 8만여 인파가 몰리는 성황을 이뤘다.

올렸다. 겨울에도 좀처럼 눈을 보기 어려운 델러스에서 평창올림픽 체험존을 통해 눈 내리는 장면을 연출해 탄성을 자아냈다.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반다비는 최고 인기를 누렸다. 100여 명이 참여한 어가행렬을 시작으로 형형색색의 줄 열 가닥이 한 기둥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로 매듭 매어지는 길쌈을 이와 참가자 모두 손에 손을 맞잡

고 함께 한 강강술래가 행사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또 지름 8피트 크기의 대형 그릇에 비벼진 비빔밥을 500여 명이 함께 나누어 먹었으며 갈비, 잡채, 김치, 떡볶이 등 한식 부스는 온종일 성황을 이뤘다. 행사의 절정은 K-팝이었다. 델러스의 K-팝 열풍은 최근 미국 NBC 뉴스에서도 다뤄졌다.

세계한인무역협회, 대학생 해외 취·창업 지원에 나섰다

전 세계 74개국 149개 도시에 지회를 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국내 대학생들의 해외 인턴 및 취업, 그리고 글로벌 창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월드옥타는 10월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한국지역대학연합 소속 8개 대학과 이



월드옥타의 박기출 회장(왼쪽 8번째)과 명예회장, 대학 총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같은 내용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의 골자는 ▲글로벌 창업 교육 사업 참여 ▲글로벌 해외 인턴 현장실습 교육 활성화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글로벌 산학협력 공동 연구와 기술 개발 ▲지역사회 및 특화 분야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MOU에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 천명훈 가톨릭관동대 총장, 서강석 호남대 총장, 최경희

아주대 부총장, 남재열 계명대 부총장, 조홍래 울산대 부총장, 최원철 전주대 부총장, 임충식 한남대 부총장이 참석했다. 박기출 월드옥타 회장은 협약식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모국 상품 수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36년간 사업을 펼쳐왔지

만, 이제부터는 모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우리의 네트워크를 타고 청년들이 해외로 뻗어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월드옥타는 이날 박 회장과 장영식 수석부회장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외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금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박 회장을 비롯한 19대 집행부 임원들은 기금준비위의 종잣돈으로 2억 원을 기부했다.

CIS 고려인 청년 기업인들, 모임 통해 네트워크 강화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의 고려인 청년 기업인들로 구성된 모임 ‘유나이티드 코리안 비즈니스 클럽’(UKBC·회장 콘스탄틴 주)의 성장이 갈수록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만들어진 UKBC는 1년 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회원 216명을 거느리는 모임으로 커졌다. 회원의 60% 정도가 각기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UKBC는 고려인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IS 고려인 청년 기업인 모임인 ‘유나이티드 코리안 비즈니스 클럽’을 이끄는 콘스탄틴 주(오른쪽) 회장과 엘레나 최 홍보위원.

주 회장은 10월 27일 “회원 증가와 함께 투자 진출, 거주국을 넘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려인 기업가들은 한 가지 사업에만 매달리지 않

고, 상호 협력과 투자도 활발하다”며 “현지 사정에 정통한 시장 정보를 서로 나누고 있어 시너지 효과도 크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통·무역을 하고 있다.

그는 “회원 기업들의 성장은 거주국에서 고려인의 이미지 상승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 중에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회장도 나왔고 나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협회 부회장”이라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려인 사회단체 간 교류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년간 UKBC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지에서 6번의 비즈니스포럼을 열었다. 내년에는 미개최 도시에서도 열어 고려인 기업가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

'D-100' 美 LA에 울려 퍼진 '평창의 꿈'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평창 알리기 한창이다. 11월 1일 미국 내 최대 한인 거주지



역인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평창 봄 조성을 위한 대규모 음악회가 열렸다.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과 국립국악원(원장 김해숙)은 LA 시내 월서 이벨극장에서 주요 외교 사절단, 한인 단체장, 문화·예술인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의 꿈' 공연을 열었다.

주일한국대사관

재일동포 신·구 정주자 차세대 화합의 밤

주일한국대사관은 10월 14일 도쿄 시나가와 콘퍼런스센터 5층에서 재일동포 신·구 정주자 차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화합의 밤'을 개최했다. 구정주자를 대표해



오공태 재일민단 단장이 '나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재일동포로 살아온 70년의 세월을 전하고 이어 신청주자인 이수경 도쿄가쿠게이대 교수가 '일본서 한국계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추석을 모국에서... 사할린 2~3세 방문단 입국

러시아 사할린 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 2~3세 1차 방문단 40여 명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향 사할린 한인 1세



귀국자들과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초청으로 9월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사할린 한인 1세 귀국자들과 한인 2~3세의 이산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할린 2~3세 모국방문'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한인 2~3세 264명이 모국을 방문한다.

월드옥타,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

톡톡 튀는 창업 아이템으로 세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국내외 청년이



머리를 맞대는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이 10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개막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기출)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고양시가 공동개최하는 이 무역스쿨에는 해외 111명, 국내 대학생 27명 등 모두 138명이 참가했다.

강제이주 80년 맞아 우즈베크서 고려인·한국 작가 합동 미술전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작가들이 '기억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그림과 사진을 전시한다. 11월 17~2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중앙



뮤지엄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화가와 사진작가 62명, 한국 화가 5명, 한국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화가 1명이 300점가량의 작품을 선보인다. 주목할 만한 작품은 2006년 작고한 신 니콜라이 세르게예비치의 1976년 작 '레퀴엠 스케치'이다.

세계 한인언론인들, 모국서 한반도 정세 관련 심포지엄 개최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용창·김소영)는 10월 16~20일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 등지에서 '2017 세계한인 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0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 대한민국의 현실과 재외동포사회의 시각'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는 25개국 60여 명의 한인 언론인이 참석했다. 한인언론인들은 "모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동포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한인언론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61년간 장학사업 펼쳐온 일본 사립대 첫 외국인 교수 서용달

“61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후원했습니다. 이 상은 십시일반으로 장학금 조성에 나섰던 수많은 재일동포를 대표해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9월 27일 ‘제1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서용달(84) 모모야마가쿠인대 명예교수는 “장학사업이나 재일동포 권익 신장에 앞장서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큰 상을 주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교수가 이끄는 재일한국장학회는 지금까지 1천200여 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그가 장학회를 만든 건 오사카시립대 4학년에 재학하던 1956년의 일이다. 성적이 좋았지만, 외국인이라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지 못하자 우리 스스로 돕자는 생각에서였다. 서 교수는 “재일동포는 엄연히 세금도 내는데 차별이라고 대학 당국에 항의해도 소용없었다”며 “여러 대학을 돌며 동포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의 취지를 설명했고 공감한 선후배들과 한인 사업가들이 모여 장학회가 출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장학회는 매년 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년간 월 3만 엔(30만 원)씩 지급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장학회 이사들이 월 1회 장학생을 대상으로 멘토 강연도 펼친다. 서 교수는 “한일 주요 대학교수, 기업가, 재일



서용달 모모야마가쿠인대학 대학원 명예교수. 서 교수는 재일동포 권익 신장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9월 2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았다.

민단 지방 단장 등 여러 인재를 배출한 것이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1963년부터 모모야마가쿠인대에 교편을 잡은 그는 일본 사립대 외국인 교수 1호다. 서 교수는 국공립대에도 재일동포 교수 임용을 추진하기 위해 ‘재일 한국·조선인 대학교원 간담회’를 만들어 10년간 청원활동을 벌였고 1982년 ‘국공립대학 외국인 교원 임용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그는 “일본 대학 강단에 서는 외국인 교수가 현재 7천5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재일동포는 1천여 명에 이른다”며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전면 허용하면 더 많은 분야에 재일동포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일동포의 참정권 획득 운동도 펼치는 서 교수는 “일본이 다문화공생 사회로 나가려면 먼저 할 일이 한국·중국·대만 출신의 재일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일”이라며 “재일동포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사회 봉사 등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초 장학회가 걸어온 길을 책으로 엮어낼 계획인 그는 “장학회가 육영사업뿐만 아니라 재일동포 학자·문화 예술인 교류 사업도 펼치는 사단법인 형태의 장학재단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창**

“
지금까지 1천200여 명의 장학생 배출...
재일동포 참정권 획득운동에도 앞장서

”

내년 美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장 낸 대니얼 아릭 고

고경주 전 미국 보건복지부 차관보의 아들 대니얼 아릭 고(32) 씨가 내년에 치러질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그는 9월 9일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매사추세츠 제3선거 지구의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한다고 발표했다. 고 씨는 니키 송가스(민주당) 현 하원의원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다. '예비선거준비위원회'와 '자금모금위원회'를 꾸리고, 선거 캠페인 사이트(koh2018.com)도 문을 열었다.

그는 앞서 8월 말 마틴 월시 보스턴 시장(민주당)의 비서실장직을 사퇴했다. 월시 시장으로부터는 100% 출마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고 씨는 웹사이트에서 “저는 ‘아메리칸 드림’의 힘을 깊이 믿고 있지만 지금 그 꿈은 공격받고 있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의회에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균등한 경제적 혜택, 양성평등 등의 진정한 미국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천명했다. ‘아메리칸 드림’의 구체적 사례로는 외증조부모와 조부, 부모의 스토리를 소개했다. “시리아 출신인 외증조부모는 지금과 같으면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겠지만 100년 전 로렌스로 이주해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외조부는 미군 전역 후 이비인후과를 개업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한 할아버지, 할머니도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부모 역시 공직에



내년에 치러질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장을 낸 대니얼 아릭 고 씨. 고경주 전 미국 보건복지부 차관보가 그의 부친이다.

“
고경주 전 차관보 아들...
“공격받는 ‘아메리칸 드림’
회복하겠다”
”

시장의 일을 도우며 현실 정치를 배웠다. 또 온라인 비디오 채널 ‘허프포스트 라이브’의 총책임자로 근무했으며, 미디어계 거물로 꼽히는 아리아나 허핑턴의 수석보좌관으로 활동하다 2014년 시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

서 일하며 봉사했죠.”

그의 할아버지는 장면 정부에서 주미 전권공사를 지낸 고(故) 고광림 박사이고, 할머니는 전해성 전 예일대 교수다. 부친과 함께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차관보급으로 일한 고홍주 전 예일대 법대학장은 작은 아버지다. 고 씨가 출마하는 제3선거구는 로웰, 로렌스, 헤이버힐, 앤도버 등 40개 타운을 포함하는 곳으로,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57%대 35%로 트럼프에 승리를 거뒀던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현지 매체인 보스턴 글로브는 “송가스 의원의 출마 포기 선언 후 여러 후보자가 나서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고 전 비서실장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며 “1968년 케빈 화이트 보스턴 시장의 젊은 하버드 출신 비서실장 바니 프랭크 전 연방 하원의원 이래 가장 주목받는 비서실장”이라고 보도했다.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비즈니스 스쿨에서 MBA 과정을 밟은 그는 대학 시절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인턴으로 일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리더십 연구원 프로그램을 통해 토머스 메니노 전 보스턴

6·25 호주 전쟁영웅 부인 생일 꼬박꼬박 챙기는 한인들

9월 21일 오후 호주 시드니의 파라마타 강에서 가까운 한 주택에서는 한인들과 호주인들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생일잔치가 열렸다. 이날 생일잔치의 주인공은 94번째 생일을 맞은 올윈 그린 여사. 생일 케이크를 받아든 그린 여사는 금세 눈물이라도 쏟을 듯 붉어진 얼굴로 “한국은 특별한 인연을 맺은 나라”라며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줘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그린 여사는 1950년 9월 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 정주 전투 부상으로 그해 11월 31살의 나이로 숨진 찰리 그린 중령의 아내다. 그린 중령은 한국전에서 연천·박천 전투 등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앞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북아프리카와 그리스 등에서 전공을 세우는 등 호주에서는 전쟁영웅으로 존경받고 있다. 27살 때 먼 이역에서 남편을 잃고 그곳에 남편을 묻은 그린 여사는 다시 결혼하지 않고 당시 3살인 외동딸 앤시아를 홀로 키웠다.

남편의 전기를 쓰거나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과 함께 전몰 호주 장병을 기리는 대형 자수를 새기는 등 남편을 기리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또 한국전 기념행사 등 시드니 한인사회의 주요 행사에도 자주 참석하는 등 함께 전쟁을 치른 양국 관계의 상징적인 인물로도 꼽힌다.

시드니 한인사회가 그린 여사와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하게 된 것은 20여 년 전이다. 당시 ROTC 호주지회장을 맡고 있던 김기덕 전 시드니 한인회 부회장이 한인신문에 난 그린 여사 인터뷰를 접하고는 위로와 감사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만나게 되면서다. 김 전 부회장은 이후 자신들의 연례행사에 그린 여사를 초청해 우의를 다졌으며, 13년 전부터는 매년 그린 여사의 생일잔치를 주선했다. 그린 여사의 아들들 자임하는 김 전 부회장은 “얼마 전까지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등 평생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셨다”



올윈 그린 여사(앞줄 가운데)가 9월 21일 호주 시드니의 자택에서 94번째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
올윈 그린 여사 생일
13년째 축하...
이사 계획에 마지막일 수도

며 “그린 여사와의 교류를 통해 열정과 깨끗함 등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의 생일잔치는 예년 같지 않게 차분하면서도 많은 아쉬움 속에 진행됐다. 그린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고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많아 곧 딸 앤시아가 있는 멜버른 쪽으로 이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린 여사는 “나를 챙겨주던 한인들과 헤어지게 돼 슬프다”면서 “멜버른으로 가더라도 계속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린 여사는 사후에는 남편 찰리 중령이 영면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합장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전례가 있는 만큼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 여사는 지난해 10월에는 “후손들이 전쟁의 고통과 상실을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유엔기념공원 내 기념관에 가로 247cm, 세로 189cm 크기의 대형 퀼트 작품 제작을 제안해 성사시켰다. [▶](#)

김기성 연합뉴스 시드니 특파원

美 대도시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복판에 위안부 기림비 우뚝

9월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 세인트메리스 스퀘어파크에서 역사적인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이 열렸다.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한복을 입은 이용수(90) 할머니가 마크 혼다 전 하원의원과 나란히 앉아 제막식을 지켜봤다.

2015년 9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서 기림비 결의안이 통과된 후 일본의 온갖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2년여의 모금운동과 디자인 공모, 작품 제작 등을 거쳐 미국 내 공공부지로는 8번째이자 미국 대도시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세 명의 한국·중국·필리핀 소녀가 서로 손을 잡고 둘러서 있고, 이를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바라다보는 형상인 이 기림비는 캘리포니아 주 카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조각가 스티븐 화이트가 '여성 강인함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했다.

기림비 동판에는 "1931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13개국 여성과 소녀 수십만 명이 일본군에 의해 이른바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을 당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또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고통의 역사가 잊힐 것이라는 사실이 가장 두렵다"는 위안부 할머니의 유언도 담겨 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제막식 축사에서 "역사는 잊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라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힘이 나서 2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좌중의 갈채를 받았다. 이 기림비 건설은 당초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위안부 정의연대'(CWJC)가 주도했다. 캘리포니아 주 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릴리안 싱·줄리 탕 두 여성



“
북가주 한인들
정성으로 모금운동
한 달여 만에 목표액 달성
”

1. 9월 22일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 세인트메리스 스퀘어파크에서 역사적인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2.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에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복을 입은 이용수 할머니가 마크 혼다 전 하원의원과 나란히 앉아 제막식을 지켜봤다.

이 공동의장을 맡은 CWJC는 '난징 대학살' 이슈를 공식화하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아시아 여성들이 연대할 수 있는 위안부 기림비 건립 운동을 시작했다.

김진덕·정경식 재단의 김한일 대표(치과의사)와 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 등 한인사회도 적극적으로 건립 운동에 가세해 지난해 8월 벌인 모금운동을 통해 1차 기금 총 40만 달러 가운데 10만 달러를 한인들이 부담했다. 이어 30만 달러를 추가 모금할 때도 한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김한일 대표는 "5달러, 10달러, 20달러씩을 낸 한인들의 정성이 모여 모금 운동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목표액을 채울 수 있었다"며 "기림비 건립의 모든 공로는 북가주 한인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국장은 "2년 전 기림비 결의안이 시의회에 상정됐을 때 일본 정부의 반대 로비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용수 할머니의 청문회 증언이 결정타가 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면서 "제막식 직전까지도 일본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끈질긴 반대 로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임금님도 부럽지 않은 산해진미 ‘강진한정식’

수라간 공녀가 비법 전한 궁중음식에서 유래...

간장게장과 보리굴비로 식사 마무리



1. 강진한정식은 말 그대로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이다. 푸짐한 상차림을 마주하고 앉으면 구중심처의 임금님이 부럽지 않다.
2. 흥어상함.
3. 보리굴비.

청정해역에서 사계절 생산되는 어패류, 청정 평야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과 기름진 쌀. 천혜의 대자연은 풍요롭고 맛깔나는 음식을 인간에게 듬뿍 선사한다. 보기만 해도 저절로 배가 부른 ‘강진한정식’이 그중 하나다. 남도 음식의 본고장에서 임금님처럼 진수성찬의 수라상을 앞에 놓고 그 맛과 멋 그리고 흥을 맘껏 누릴 수 있다.

강진한정식은 언제, 어떤 연유로 지금처럼 푸짐하고 맛깔스러운 음식으로 태어났을까? 그 연원은 조선 후기로 거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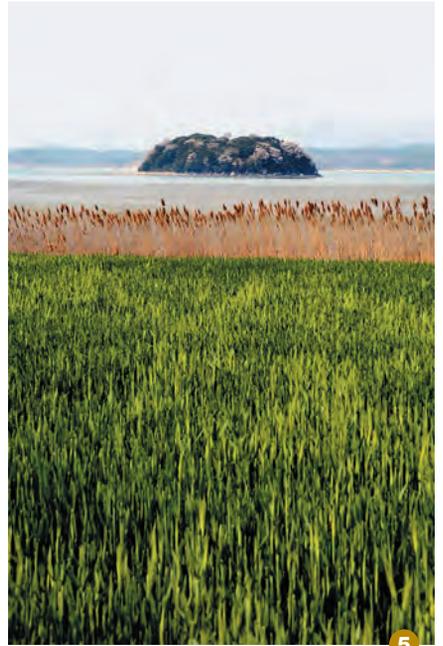
러 올라간다. 한반도의 끝자락인 강진은 왕궁과 거리가 멀어 조선조 사대부나 왕족들의 유배지 중 하나였다. 이때 유배를 따라온 수라간 공녀가 궁중음식의 비법을 전하면서 강진한정식이 탄생하게 됐다.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살던 목리 마을로 유배 온 이 공녀는 이곳 아녀자들에게 수라간의 요리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었는데, 이것이 훗날 풍성한 강진한정식으로 거듭 태어났다고 한다. 공녀가 유배 올 당시 궁중에서는 신분에 따라 음식에 각기 차이를 두었다. 왕의 수라

상은 12첩 반상으로 차렸으며 반찬은 구이, 전, 볶음, 편육, 조림, 지짐, 생채, 속채, 튀김, 전골, 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됐다.

이처럼 화려한 궁중음식이 강진 지역의 향토 음식과 한상차림으로 절묘하게 융합되면서 맛 좋고 영양 많은 오감 만족의 한정식 밥상으로 재탄생했다. 강진은 강과 바다, 들과 산 등 자연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데다 사계절 기후조건도 매우 좋아 다양한 해산물, 곡식, 채소 등 온갖 식재료들이 예부터 풍성하게 넘



4~5. 아름다운 풍광과 풍성한 해산물을 자랑하는 강진만.



5

쳐났다. 천혜의 자연조건과 고품격 궁중 음식이 만나 오감만족의 한정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4인을 기준으로 한 강진한정식의 상차림은 10만 원, 12만 원, 16만 원짜리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밥상에는 32가지의 음식이 준비하게 놓여 입맛의 대향연을 펼친다.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보통 세 번에 걸쳐 차례로 나눠 놓이는데 그 맛과 멋에 취하다 보면 그 많은 음식이 금세 어디로 다 사라졌나 싶어 신기해질 정도다. 한정식의 대표식당 중 하나인 다강한정식의 경우 '정삼품', '정이품', '정일품' 이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 밥상을 내놓는다. 10만 원짜리 정삼품에는 32가지 음식이 놓이고, 12만

원짜리 정이품에는 전복 슬라이스, 낙지 호롱이, 낙지 탕탕이 등이 추가된다. 16만 원짜리 정일품 밥상에는 우럭구이, 전복찜 등 한결 고급스러운 요리들이 더 놓인다. 상은 크게 세 차례로 나눠 차려진다. 1차로 반찬 등 기본음식이 놓이고 이어지는 코스요리로는 떡갈비처럼 따뜻한 것이나 뜨거운 음식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 때는 밥상의 귀족격인 간장게장과 보리굴비가 밥과 함께 등장한다.

현재 강진에는 다강을 비롯해 예향, 남문식당, 강진만한정식, 돌담한정식, 동지식당, 명동식당, 석천, 청자골종가집, 해태식당 등 다수의 한정식 식당이 성업 중이다. **참**

강진군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정보

영랑생가&시문학파 기념관 → 사의재 → 오감통 → 다산초당 → 백련사 → 고려청자 박물관 → 한국민화뮤지엄 → 마량항

대중교통

고속버스: 서울 센트럴시티-강진 (약 4시간 30분 소요), 목포-강진(약 50분 소요)

기차(KTX): 서울(용산)-목포 (2시간 30분 소요)

식당정보

다강 (061-433-3737)
예향 (061-433-5777)

다산초당

강진만을 한 눈으로 굽어보는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18년 중 10여 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목민심서 등 600여 권에 달하는 조선조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곳이다. 다산은 1801년 신유사옥으로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다시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다산 초당은 노후로 인해 붕괴하였던 것을 1957년 복원하였고 그 후 다산이 거처하였던 동암과 제자들의 유숙 처였던 서암을 복원했다. 다산초당에는 다산이 '丁石' 이라는 글자를 직접 새긴 정석바위, 차를 끓이던 약수인 약천, 차를 끓였던 반석인 다조, 연못 가운데 조그만 산처럼 쌓아놓은 연지석가산 등 다산사경과 다산이 시름을 달래던 장소에 세워진 천일각이라는 정자가 있다.



유공 고려인 동포 50명 초청, “모국과 뿌리 연결”

재외동포재단은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러시아·CIS 고려인 동포 50명을 초청해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모국 방문이 처음이거나 모국 방문이 어려운 고려인 동포들을 초청해 위로·격려하고 모국 체험의 시간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6개 국가에 거주 중인 50명의 참가자들은 독립운동가 후손, 강제이주·징용자 본인 또는 후손과 거주국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 동포 및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려인 동포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는 아시아의 피카소로 불리는 고 신순남(1928-2006, 신 니콜라이) 화백의 애제자이자 큰 며느리인 신 이스크라,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 계봉우의 후손인 김 에두아르드와 독립운동가 민공호의 후손인 유가이 바치슬라브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17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모국에 잠들어 있는 재외동포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렸다. 이어 전쟁기념관을 견학한 후 옛 서울역 고가도로를 새로 단장한 ‘서울로 7017’과 청계천 등 서울과



고려인 유공동포 50명은 10월 17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모국에 잠들어 있는 재외동포들의 영령을 추모했다.

파주 지역을 방문해 모국의 문화와 발전상을 보고 경험했다.

18일에는 파주 DMZ 투어를 통해 분단의 역사와 현실을 체험하고, 19일에는 경복궁 및 남산골 한옥마을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시 주최 환송오찬에 이어 한복을 입는 등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재단 관계자는 “모국 방문이 처음인 독립운동가 및 강제이주자나 후손, 고려인 2~3세 참가자가 많아 이번 사업의 의미가 매우 컸다”며 “모국의 정을 느끼고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도 커진 만큼 현지 차세대들도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재외동포 맞춤형 역사교육 콘텐츠 한글학교에 보급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맞춤형 역사교육 콘텐츠가 최근에 나왔다.

재외동포재단과 독립기념관은 지난 4월 21일 재외동포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교재 개발을 추진했고, 최근 체험형 4종과 탐구형 1종을 제작해 우선 미국 내 한글학교 122곳에 배포했다.

체험형은 ‘대한민국의 상징-태극기·무궁화·애국가’, ‘자랑스러운 역사-이순신과 거북선’, ‘노블레스 오블리주-이회영 6형제’, ‘대한민국의 영토-독도’이며, 탐구형은 독립운동가 안창호와 재미동포 독립운동사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 콘텐츠는 주제별 역사수업에 필요한 프레젠테이션·학습 지도안 등 교수 자료와 학생용 교재 및 교구로 구성됐다.

재단은 미국 내 한글학교 협의체인 미주한국학교연합회(회



재외동포재단과 독립기념관이 협력해 개발한 체험형·탐구형 역사교재

장 클라라 원)와 재미한국학교협의회(회장 이승민)가 진행하는 학술회의에서 사전 안내 후 교재 신청을 받았다. 10월 중으로 배포를 끝냈고 교재를 받은 학교는 12월까지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내년부터 타 지역으로도 확대·보급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10번째인 ‘재외동포의 정체성·역량 강화’에 맞춰 다양한 역사교육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2월 그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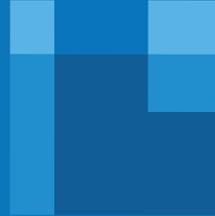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알파인 스키 Alpine Ski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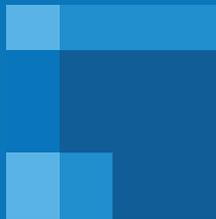
바이애슬론 Biathlon



크로스컨트리 스키 Cross-Country Skiing



프리스타일 스키 Freestyle Skiing



노르딕 복합 Nordic Combined



스키점프 Ski Jumping



스노보드 Snowboard



봅슬레이 Bobsleigh



루지 Luge



스켈레톤 Skeleton



컬링 Curling



피겨 스케이팅 Figure Skating



아이스 하키 Ice Hockey



쇼트트랙 Short Track Speed Skating



스피드 스케이팅 Speed Skating

입장권 선착순 판매 www.PyeongChang2018.com

※ 1인당 총 주문 한도는 50매이며, 1개 경기 주문한도는 인기 경기(4매)*, 그외 경기(8매)

*인기경기 : 개회식, 폐회식, 피겨스케이팅(전 경기), 쇼트트랙(전 경기), 스키점프(결승),
아이스하키(남자-4강부터 결승까지, 여자-결승), 스피드 스케이팅(10000 m 제외한 전 경기)



입장권 QR코드

원클릭 서비스(입장+교통+숙박) 안내 www.pyeongchang.kaltour.com

고객센터 : 1544-4226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